『 삼광 구역 공과 』

일시: 2018년 12월 9일 (둘째 주일)

성경본문 : 행23장 23-30절 설교제목 :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할 것은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음모의 배후에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방해하려는 사탄의 집요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위해 구원의 손길을 펴십니다. **23절**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 삼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이백 명과 기병 칠십 명과 창병 이백 명을 준비하라** 하고”. 천부장은 자기 수하의 백부장 둘을 불러서, 밤 제 삼시에 바울을 가이사랴로 호송할 계획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세웁니다.(23절) **밤 삼시**는 오늘날 시간으로 밤 9시경입니다. **가이사랴**에는 로마 총독부가 있는 곳으로서, 예루살렘에서 서북방으로 약 104km 떨어진 곳입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로마시민으로써 정식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호송하기 위해서 무려 **470명**의 군인들을 동원합니다. **24절**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가이사랴에 있는 로마총독부의 총독은 **벨릭스**였습니다. 그리고, **짐승**으로 번역된 **크테네**는 짐이나 사람을 운송하는 나귀나 말을 가리킵니다. 천부장은 바울을 신속하게 이동시키기 위해서 나귀나 말까지 준비시켰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할 것은 비록 하나님께서 천부장의 손을 빌었지만, 바울을 구원하시기 위해 철저하게 준비하는 모습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철저한 준비는 우선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폭력성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보여 주는 것이지만, 한편으론 우리는 여기서 사탄의 공격성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깨닫고, 그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더 순결하고 똑똑해져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25절** “또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렀으되”. 로마의 법에 의하면, **엘리기움**이라 하여 하급 관리가 상급자에게 어떤 사건을 보고할 경우 그 사건에 대한 서면 진술서를 보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는 사건에 대한 서면 진술서라고 보면 됩니다. **26절**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에게 문안하나이다”. **글라우디오**는 로마식 이름이고, **루시아**는 헬라식 이름입니다. 천부장은 본래 루시아라는 이름을 가진 헬라인이었으나, 글라우디오 통치하에 로마의 시민권을 취득하고, 글라우디오라는 이름을 덧붙였을 것입니다. **27절**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천부장은 진실과 거짓을 교묘하게 혼합하여 진술서를 쓰고 있습니다. 그가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28절**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천부장은 바울을 결박한 것은 소란이 벌어진 이유를 알고자 한 것이 아니라, 다짜 고짜 결박한 것입니다. 그들은 군중들의 소요로 인해서 자신에게 초래될 불이익 때문에 바울을 결박한 것입니다. **29절** “고발한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천부장은 유대인들의 고발이 단지 그들의 종교적 문제로 율법의 해석에 관한 문제이자 형사상 처벌의 대상이 아니라는 소견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사실상 바울의 무죄를 밝힌 것입니다. **30절**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간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 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사실, 천부장은 자신의 판단에 따라 바울을 석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부장이 바울을 벨릭스 총독에게 보낸 것은 유대인들을 반발을 우려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손에서 그를 보호하여 안전하게 로마까지 보내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하심의 손길이었습니다. 만일

천부장이 바울을 석방했다면 바울은 유대인들의 손에서 암살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명확한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나라임을 분명하게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이 나라 민족의 가장 위기의 순간은 일제 강점기였습니다. 그때 이 나라는 주권을 강탈당하고, 나라를 잃었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한국 교회를 세우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새롭게 깨어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로부터 해방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함석헌 선생께서 **'뜻으로 본 한국역사'**에서 해방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요지는 해방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여러 주변의 강대국들의 도움이 있었지만, 그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였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결국 이 민족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세운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다시금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 민족을 구원해 주셔야 합니다. 답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개인주의적 신앙에서 벗어나 민족의식과, 역사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이 본문을 단지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메시지로만 해석하고 은혜 받아서는 안됩니다. 바울의 구원의 이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영적싸움의 큰 그림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벌어지는 영적 싸움의 본질이 무엇인가 알아야 합니다. 사탄은 그냥 머리에 뿔달린 괴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탄은 매우 교활한 존재입니다. 사탄은 무시무시한 전략을 가지고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구원하실 도구로 쓰임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해체시키려는 반기독교 세력의 실체를 깨닫고 깨어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와 가정과 이 민족을 구원하는데 앞장 서야 합니다. 법과 정치가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바른 역사 의식과 영적 통찰력이 없으면 교회도 무너지고 나라도 무너집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구원하신 나라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길 소원해 봅니다.

※.말씀 살펴보기

1) 바울을 죽이려는 유인들의 음모를 듣고 나서 천부장이 취한 행동는 무엇이었습니까?

2) 천부장이 벨릭스 총독에게 편지의 성격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용이 무엇인지?(25-30절) 이야기해 봅시다.

※.말씀 나누며 적용해 보기

1) 이번 주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2) 우리는 사탄의 공격성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깨닫고, 그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교회가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구역원들과 함께 나누어 봅니다.

3) 오늘 말씀을 통해 앞으로 내가 달라져야 할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무엇입니까?